

북한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화흡수 현황과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개발금융연구센터

박 창 진 (jintonic@kdb.co.kr)

이 서 연 (sylee20@naver.com)

- ◆ 북한은 IT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및 전자결제 방식 다양화 진행 중
- ◆ 대북제재·코로나19 등의 여파에 따른 외화 고갈로 주민 보유 외화 흡수 및 강제저축 유도 정책을 추진 중이나, 주민의 금융에 대한 불신으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
- ◆ 최근에는 계좌에 예치된 외화를 전자결제 카드와 연동시켜 다양한 상품 구입이 가능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개시하는 등 북한 주민의 자발적 외화사용 장려 추세
- ◆ 다만, 북한의 전자상거래는 자체 인트라넷 위주의 IT인프라로 대외 접근이 제한되어 해외로부터의 거래 등 비거주자를 이용한 외화흡수 확대 한계

□ 북한은 IT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(E-commerce)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전자상점 등장과 함께 새로운 결제방식 도입

- 최근 개인 이동통신 보급, '돈주'에 의한 사적 배달서비스 등장 및 전자결제법 제정('21년) 등으로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발달
 -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급증('14년 약 280만→'21년 약 600만명)하고 있으며, '별이버스', '서비차' 등 택배수단이 빠르게 증가
 - '15년 첫 전자상점인 '옥류'가 문을 연 이후 22개*의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하였고, 현재 북한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'만물상'이 대표적인 전자상점으로 자리매김
 - ※ '만물상'은 '21년 기준 보건·의료품, 특산물, 공예품 등 5개 카테고리에서 약 249개 품목을 판매 중
 - * KOTRA (2021.04.20) 「북한정보」 "북한의 전자상거래"
-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확장과 더불어 최근 IT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방식 확산
 - 대표적 모바일 결제시스템 '울림'은 중국의 '위챗페이', '알리페이'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, 지정된 은행에서 발급된 계좌연동 카드를 등록해 사용 가능*
 - *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(2019.11.25) 「KB지식비타민」 "북한의 모바일 결제어플 : <울림 1.0>"
 -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등장은 간편결제, 전자카드 등 이용편리성을 제공하는 반면, 당국에 의해 주민이 소유한 자금을 흡수하고 자금흐름 감시에 용이성 제공
 - ※ '울림 2.0'이 출시되어 중앙기관이 발급한 카드 뿐만아니라, 무역기관 카드도 허용되는 등 등록 가능한 카드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사용자에게 요금이체, QR코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간편결제 기능 등이 추가

북한의 전자상점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 '울림 2.0'



자료 : SPN서울평양뉴스(2018.04.06.) 만물상 홈페이지



자료 : 데일리NK (2020.11.04)

□ 북한은 대북제재, 무역봉쇄 여파로 외화보유액이 고갈되어 주민 외화보유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,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화흡수 수단 다변화 시도

- 대북제재로 광물 등 주요 수출품을 통한 외화수입 차질과 코로나19에 의한 對中무역 급감 등 주민들의 달러 선호 현상(dollarization) 확산으로 심각한 외화부족 발생
 - '21년 당국은 주민들의 외화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지정 은행에 예치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강제*하는 등 외화사용 감시를 위한 정책 시도
 - * 데일리NK (2021.04.23) "북한, 주민 대상 외화 보유 실태 조사...저축도 강요"
 - 다만, '09년 화폐개혁 명목으로 실시한 현금몰수로 인해 주민들의 공금함에 대한 불신이 높아 외화흡수에 한계 노출
- 이러한 환경下, 최근 외화로만 결제 가능한 온라인 상점을 통해 주민 사이에 유통 중인 외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장
 - '외화상점봉사 2.0'은 13개*의 대도시 가맹점이 등록되어 다양한 상품과 신속한 배송 등의 이점을 통해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외화사용 유도
 - * 데일리NK (2022.09.06) "북한 스마트폰 앱 '외화상점2.0' 인기... 1~2주면 물건 배달"
 - 기존 외화상점(Off-line)은 고가의 수입명품 판매로 특수계층이 주로 이용하였으나, 온라인 플랫폼 도입 이후 전국 각지의 주민 접근성 확대
 - 결제는 사전등록된 외화카드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발급없이 본인명의의 외화 계좌를 통한 송금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다양한 방식*의 외화 사용 가능
 - * 데일리NK (2022.09.13) "스마트폰 외화상점 앱 결제 방법은? "카드·송금 모두 가능"

최근 북한의 외화유통 구조 및 외화상점(대성백화점)



자료 : 한국은행(2020.6), "경제분석" 자료 재구성

자료 : 뉴스시스 (2019.07.09)

□ IT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의 양적·질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며,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화흡수 가속 예상

- 전자상거래 도입 초기 당국 주도의 G2C 유형에서 벗어나, 점차 B2B·B2C 거래 증가로 전자상거래 이용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
 -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 '옥류*'는 인민총봉사국에서 운영하였고, '만물상' 출범 이후 100여개 공장·기업소·단체와 7만여 명의 개인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
 - * KOTRA (2020.05.30) "북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동향"
- 또한,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과 맞물려 IT창업 증가 추세로 위안·달러 등의 외화결제를 유도하는 다양한 핀테크(Fin-tech) 스타트업 등장
 - 북한 최초의 24시간 배달서비스 앱('앞날'), 네비게이션 앱('길동무'), 사진보정 앱('봄향기'), 택시호출 앱('콜택시') 및 스마트폰 게임 등 온라인 서비스의 질적 제고*
 - * 연합뉴스 (2018.07.09) "북한서 IT 창업 증가 추세...스마트폰 앱에도 관심 많아"
- 스마트폰 기술 발전에 따라 인앱결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자결제 도입*으로 강제적인 외화흡수 방식을 탈피, 주민의 보유 외화의 자발적 사용 확대 유도 전망
 - * 서울경제 (2022.08.12) "北, 달러·위안화 사용 늘고 북한식 삼성페이 '전화돈' 이용도 급증"

□ 다만, 북한의 전자상거래 기반이 자체 인트라넷(광명성)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어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외화흡수에 제약 존재

- 북한의 전자상거래 IT인프라는 체제유지 등 당국의 폐쇄적 인식으로 인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며, 국외에서 자유로운 접속에 제한
- 대외적인 접근이 제한된 자체 인트라넷 사용기반 하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화유입 및 경제적 수익성 창출 한계